

### Maurice Gross

1934년 프랑스 태생으로 프랑스의 저명한 언어학자. 엑스-마르세이유 대학 부교수, 빠리 고등사범학교 부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빠리 7대학 언어학과/전산학과 교수로 재직중. 또한 프랑스 국립과학재단 언어-자료 자동처리 연구소장이자 전산 언어학 연구소장으로 있음.

주요저서로는

*Mathematical Models in Linguistics* (1972), *Notions sur les grammaires formelles*(1966), *Grammaire transformationnelles du français*, 3 vols (1968), *Méthodes en syntaxe*(1975) 외 다수가 있다.

# 불어 어휘문법에서의 속어표현 표상 원칙

모리스 그로스

불어 어휘문법(*lexique-grammaire*)의 구성은 자유문의 경우이건 속어문의 경우이건 간에 불어의 기본문장(*phrases élémentaires*)을 분류하는 작업을 거쳐 이루어진다(C. Leclère 1990). M. Gross 1982를 통해 우리는 불어 속어문(*phrases figées*)의 분류 시도를 소개한 바 있다. 이 첫번 체계는 우리가 속어표현에 관한 기술을 계속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어휘·통사적 요소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현상이 드러났으며, 이는 분류작업과 그 근거에 대한 재검토를 요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 우리는 현재 50여개에 이르는 부류로 나뉘어진 3만 개 이상의 문장표현을 포함하는 속어표현 분류의 새로운 단계를 제시하려 한다. 1982년에 소개된, 속어문에 관한 우리의 첫 어휘문법은 22개의 부류로 구분된 8500개의 항목을 지닌 것이었다. 이제 기술(*description*)의 이러한 이론적·실제적 발전에 이르게 한 동기에 관해 설명해 보기로 하자.

## 1. 구성성분의 명시

다음의 문장들을 살펴보자.

- (1) Luc passe la main(C1D)
- (2) Luc met la main à la pâte(C1P2)

위 문장들의 표기형태(graphie)는 이미 그 자체만으로 일종의 형식화된 표상을 이룬다. 사실 언어의 변천은 의미적 근거를 지니지 않는, 단일어(mots simples)로의 분할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단일어의 의미도 (관사, 전치사 등에 의해 제공되는), 통사구조에 관한 정보도 위와 같은 표현들의 의미 구성에 기여하지는 못한다.

통시적 고찰과는 별도로, 문장(1)-(2)의 표기형태는 한편으로는 문법적 분석이 가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분석의 결과가 자유문(phrases libres), 즉 형태와 의미의 합성에 의해 형성되는 문장들을 분석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에 의해 여전히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Z.S.Harris 1952, 1964, 1968). 따라서 문장(1)-(2)의 형식상의 단어들(mots formels)에 문법범주를 연결지으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얻게 된다.

(1g) Npr V Dét N

(2g) Npr V Dét N Prép Dét N

이러한 표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관찰 대상이 된 문장들간의 비교와 그들간의 유용한 구별을 행할 수 있게 한다. 더우기, 방대한 어휘집을 구성할 경우, 이러한 표상은, 예를 들어 표현을 이루는 단일어들을 알파벳순의 색인(index)에 실는 등의 방법에 의해, 표현의 단일부분들로부터 출발하여 그 복합형태에 이를 수 있게 하는 편리한 접근방법을 제공해 준다(B.Courtois 1989-1990의 전자사전 DELAS 참조). 표기형태와 (g) 유형의 문법적 분석에 따라 (1)의 문장구조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s) (Luc)<sub>0</sub> passe (la main)<sub>1</sub>

또 예문(2)에 대해서는, 비록 그 통사적 근거가 명백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두 보어를 취하는 구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2s) (Luc)<sub>0</sub> met (la main)<sub>1</sub> à (la pâte)<sub>2</sub>

이상과 같은 고찰은 속어문에 관한 연구에 있어 기본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구조들이 우리의 속어문 분류에 개입되기 때문이다. 사실 속어문은 수적으로도 상당하며, 그 형태 또한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들이 지닌 일반적 속성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성해야 할 분류작업을 통해서만 포착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조작적(opératoire)이어야 한다. 달리 말해서, 모든 속어문은 동일한 방식에 의해 하나의 부류(classe) 안에서 표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된 분석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보기로 하자.

다음 예문을 보자.

(3) Luc découvrira le pot aux roses

(4) Luc prend ses cliques et ses claques

이들의 문법적 분석은 각각 다음과 같다.

(3g) Npr V Dét N Prép Dét N

(4g) Npr V Dét N Conjc Dét N

(3g)에서 우리는 축약형 *aux*를 *à les*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문장 (2)와 (3)의 분석 결과는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관적으로 우리는 예문(3)이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는 단일보어를 지닌 구조임을 알 수 있다.

(3s) (Luc)<sub>0</sub> découvrira (le pot aux roses)<sub>1</sub>

반면에 예문(2)는 (2s)의 구조에서 본 바와 같이 두 개의 보어를 취한다. 문장(4)의 경우에는 등위접속사 *Conjc::et*의 존재와 접속된

두 부분의 음성적 대칭성이 아래와 같은 분석으로 이끈다.

(4s) (Luc)<sub>0</sub> prend (ses cliques et ses claques)<sub>1</sub>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이러한 구별의 재생산성(reproductibilité)의 문제, 즉 은유나 어원 등의 의미적 직관, 혹은 우연적인 유추에 의거하지 않은 구별 절차의 정립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le pot aux roses와 le pot à eau라는 두 연쇄체간의 유사성을 내세워, le pot aux roses가 명사보어(complément de nom)를 포함한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mettre la main à la pâte와 mettre la main à sa cravate간의 평행성이 이 두 구문은 두 보어를 허용하고, 이때 제 2보어는 mettre동사를 취하는 경우 흔히 그러한 것처럼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결론지어어도 안된다(A. Guillet, C. Leclère 1991). 문장(1), (2), (4)는 동일한 구조를 지니므로 함께 분류되어야 하며, (2)와 (3)은 서로 상이한 구조를 취하고, 따라서 서로 다른 부류에 속한다는 사실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대략적인 논증에 만족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직관에 부합하든지 혹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문장의 일반적 속성에 근거한, 다시 말해서 이미 잘 알려진 문법규칙의 일반적 적용을 토대로 한 통사적 상이성을 모색해보기로 하자. 그리하여 예문(3)에 수동변형 규칙([Passif])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연쇄체를 얻게 된다.

Le pot aux roses sera découvert par Luc

\*Le pot sera découvert aux roses par Luc

\*Le pot sera découvert par Luc aux roses

이는 (3s)에서의 분석이 정당함을 증명해 주며, 동시에 두 보어를 취하는 구문으로의 분석을 배제한다. (4)에 [Passif]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용인 불가능한 연쇄체가 생겨난다.

\*La main à la pâte a été mise par Luc

\*La main a été mise à la pâte par Luc

\*La main a été mise par Luc à la pâte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문장(4)가 어떤 식으로도 수동변형 규칙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외에는 그 구조에 관해 아무 것도 알려 주는 바가 없다. 이제 (2)-(3)의 두 문장에서 souvent에 적용된 부사 환치(permutation)의 일반규칙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관찰할 수 있다.

\*Luc découvrira le pot souvent aux roses

?Luc met la main souvent à la pâte

비록 두번째 예문에 의심의 여지가 남는다 하더라도, 두 문장의 용인가능성(acceptabilité)의 차이는 명백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3s) 구조에 대한 명백한 정당성과 (2s)의 타당성을 확인하게 된다.

결국 근본적인 어려움은 C Prép C 형태로 표시되는 속어 연쇄체의 통사적 분석에 있다. 즉 이들의 속어적 특징이 대치(substitution)와 변형을 금함에 따라 어려움이 발생한다. 문제가 된 구문이 이종의 보어를 취하는, 즉 (C)<sub>1</sub> (Prép C)<sub>2</sub> 구조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사 보어를 동반한 단일보어, 즉 (C(Prép C))<sub>1</sub>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어떻게 결정 내릴 것인가? N<sub>0</sub> V C<sub>1</sub> Prép C<sub>2</sub>의 구조를 취하는 CIP2 목록의 형태들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

Cette remarque a embué de larmes les yeux de Max

= Cette remarque a embué ses yeux de larmes

여기서는 두 보어의 환치가 간단한 기준이 된다. 아래와 같은 수동형의 존재는 이러한 분석을 확증해 준다.

Ses yeux sont embués de larmes

통사적 기준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속어형과 동일한 동사를 취하는 자유문간의 비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리하여 각기 자의적 의미(sens littéral)를 지니는 다음의 두 문장은 두 보어를 지닌 경우로 분석되며,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C1P2 목록에 속하는 항목으로 분석할 것이다.

Max a changé son fusil d'épaule

Max a donné sa langue au chat

그러나 결정이 까다로운 다음과 같은 형태가 여전히 남는다.

Max construit des châteaux en Espagne

여기서 châteaux en Espagne는 chimère의 동의어로 간주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châteaux만이 chimère에 해당되며, 이때의 en Espagne는 도달할 수 없는 곳(Eldorado)으로 해석되어 이 경우 장소를 표현하는 상황보어가 되는가? 게다가 위 예문에 상응하는 자유문, 즉 자의적(字義的) 의미를 지니는 문장의 분석 또한 동일한 문제를 제기함을 지적해 두자. C1PN과 CNP2 부류에 관한 논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 2. 속어문의 형태

### 2.1. 보어의 구분

우리는 속어문을 자유문과 동일한 방식에 의해, 즉 주어, 동사, 분포 가능한 보어로 분석한다. 속어문은 문장을 구성하는 명사구(주어 혹은 보어) 중 적어도 하나가 동사에 대해 응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따라서 우리의 속어문 분류는 다음과 같은 세 요인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 자유문의 경우에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어의 수
- 보어의 응결 여부

- 속어보어의 형태 : 처음에는 전치사의 형태만이 이용되었으나 분류가 보다 세밀해짐에 따라 속어보어의 내적 구조, 그 중에서도 특히 한정사의 성격이 고려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먼저 보어의 전반적인 형태에 관해 살펴보고, 이어서 이러한 보어들간의 구별의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전치사보어의 생략은 다양한 상황에 결부된다. 왜냐하면 이 보어들이 처음에는 간접목적어였거나 상황보어였기 때문이다. 이들의 속어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들의 성격을 규정짓기가 힘들어졌다. 그러나 몇몇 속어보어는 명백히 부사인 듯 보이며, 또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다(M. Gross 1990 참조). 이들은 일반적으로 수의적 성격을 띤다. 달리 말해서 그들의 생략이 동사의 의미를 바꿔 놓지 않는다.

Max est parti (E + à tort ou à raison)

Max a parlé (E + à visage découvert)

Max triche (E + à présent + de fait)

다음의 예문은 목적어 유형의 보어를 취하고 있다.

Max a forfait (E + à l'honneur)

Max se gargarise (E + de mots)

Max parle (E + de choses et d'autres)

Max se moque (E + du monde + du peuple)

마지막 두 예문에서 명사 les choses, le monde, le peuple 등은 부정대명사(pronom indéfini)의 의미를 지닌다.

다음의 예들은 보다 부사적인 유형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은 단 하나의 동사에만 한정되어 쓰인다.



- Max marche (E + dans la combine)  
 Max rit (E + sous cape)  
 Ce projet pêche (E + (à + par) la base)  
 La réunion traîne (E + en longueur)

위 경우들에 비해 구별이 보다 덜 명확하거나 또 때로는 자의적(arbitraire) 결정을 요하는 상황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몇몇 분류 기준의 조작적 특징이 악화되기도 했다. 다음 문장을 비교해 보자.

- (1) N<sub>0</sub> battre N<sub>1</sub> à plate couture  
 (2) N<sub>0</sub> battre N<sub>1</sub> d'une courte tête

이들은 동일한 구조를 지닌다. Prép C<sub>2</sub>로 표시될 수 있는 부분은 강도부사(adverbe intensif)로서, 두 경우 각각 de beaucoup와 de peu에 의해 환언될 수 있다. 이 부사들이 생략될 경우, 의미의 변화 없이 N<sub>0</sub> battre N<sub>1</sub> 형식의 자유문이 형성됨을 보게 된다. 그러나 어떤 상이성이 존재하는 듯 하며, 그로 인해 우리는 예문(2)를 PAC 부류에 속하는 속어부사를 동반한 자유문으로 기술한 데 반해, 예문(1)은 CNP2 부류 안에서 기술하였다. 그 이유는 d'une courte tête가 여러 다양한 동사들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

- Max a (gagné + vaincu) d'une courte tête  
 Max a devancé Luc d'une courte tête, 등

반면에 à plate couture는 battre에만 국한된 것인 듯 하다.

- \*Max a (vaincu + devancé) Luc à plate couture  
 \*Max a gagné à plate couture

이러한 상이성은 구조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단지 부사의 결합관계에 있어서의 수적 차이에 불과한 것, 그러므로 인위적인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 기술을 수정할 경우, CP1과 CNP2 부류에 수록된 예들을 대응되는 부사의 부류로 옮겨 놓기만 하면 될런지도 모른다. 논의의 여지가 있는 예들을 여러 개 찾아 내어 살펴본 결과, 이들은  $N_0 V$  와  $N_0 V N_1$  형태의 하위구조 (sous-structure)가 +로 표시된 것들임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상황들은 훨씬 덜 명확하다. 예를 들어, 결합관계의 기준에만 의거하면 다음의 형태들은 CIP2 부류 안에 놓이게 된다.

(3) Max boit son vin (à longs traits + d'un(E + seul) trait)

여기서 Prép C<sub>2</sub>는 명백히 부사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실 또한 관찰된다.

Max a (avalé + englouti + liquidé) son verre d'un (E + seul) trait

?\*Max a (avalé + englouti + liquidé) son verre à longs traits

그리하여 우리는 경쟁적인 두 해결책에 직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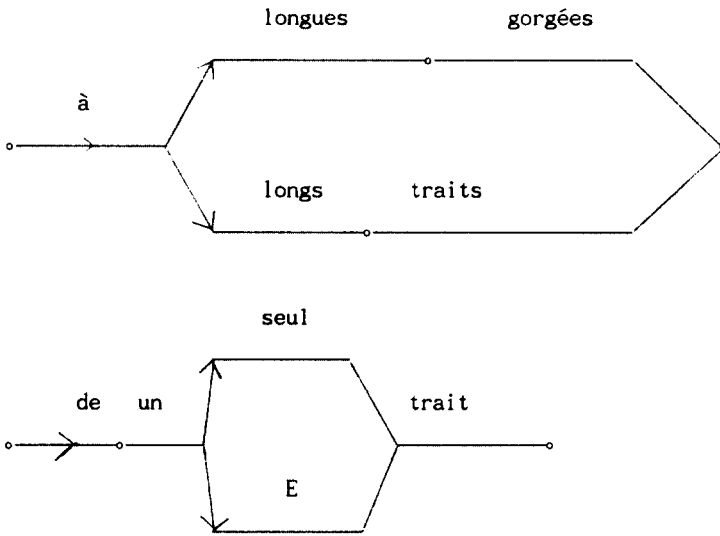
- 그 한 가지는 à longs traits를 동사의 특수 보어로 취급하는 방법인데, 그 이유는 이것이 한 동사에만 제한되어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이 요소는 CIP2 부류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와는 달리, d'un (E + seul) trait는 PAC 부류에 속하는 부사로 분석될 것이다.

- 다른 한 가지는 분류작업에서 실제로 채택된 해결책으로서, 이 경우에는 (3)에 나타난 세 형태가 모두 CNP2로 분류되며, trait라는 공통의 단어로 이들을 접근시킨다.

그런데 사실은, d'un seul trait와 à longs traits라는 두 부사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상(aspect)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즉

avalier와 engloutir는 순간적 지속상(durée courte) 혹은 완료상(accompli)의 표지를 지니는 반면, boire는 무표성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d'un (seul) trait는 순간적 지속상과 양립가능한 반면, à longs traits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직관이 객관화될 수 있다면 그때에는 상(相)의 문제를 다루는 데서 해결책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형식적 변이형이 수적으로는 많으나 서로 연관되어 있는 예들은 유한 기계장치(automates finis)에 의해 표상되는 국부분법(grammar locale)의 대상이 될 수 있다(D.Maurel 1989). 예를 들어, (3)의 문장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도식이 가능하다.



<그림 1>

2.2. 명사구의 내적 구성

앞에서 우리는 속어보어에 관해 명시한 바 있다. 이는 전치사를 취하거나 또는 취하지 않은 명사구로서 그 형태는 다양하다. 우리는 전치사, 한정사, 접속사 등의 문법적 요소와 주요 4품사, 즉 동사, 형

용사, 명사, 부사를 구별짓는다. 자유문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네 범주만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나, 여기서는 문장 구성의 의미 단위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어휘 지표로 취급될 것이다. 속어 표현에 있어서 이런 구별은 이론적이기 보다는 실제적인 의의를 지니며, 특히 주요 4품사에 대한 단일어 색인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 이 색인에는 문법적 단어가 포함되지 않는데, 실제로 이들은 그 빈도수가 너무 높아서 그것들에 연결된 참조표시가 무용한 것이 되어 버릴 것이다.

속어명사구에서는 단일어의 가능한 모든 결합형이 관찰된다. 다음 예들은 C1 목록에서 추출된 것들로서 직접목적보어에 해당하나, 우리는 속어화된 모든 통사 위치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합들을 보게 될 것이다.

- (1) Adj N : <Luc n'a pas dit> son dernier mot 의 경우
- (2) N Adj : <Luc a mangé> son pain blanc 의 경우
- (3) N de N : <Luc a pris> la poudre d'escampette 의 경우
- (4) N Prép N<sup>1)</sup> : <Luc construit> des châteaux en Espagne 의 경우
- (5) N Conj N : <Luc tuerait> père et mère 의 경우

보다 복잡한 형태들도 존재하나, 그들은 보다 드물게 쓰인다.

- Adj N de N : <Luc connaît> le fin mot de l'histoire 의 경우
- N Prép N de N : <Luc a tué> la poule aux oeufs d'or 의 경우 등

0) 여기서는 단일부사(adverbes simples)를 일컫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합부사(adverbes généralisées)는 가장 일반적인 명사구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1) 여기서 Prép 라는 기호는 de 이외의 전치사를 나타낸다.

(1)-(5)의 유형은 가장 일반적인 것들로서, 예를 들어 숙어부사의 분류 (M.Gross 1990)와 복합명사의 분류(J.Giry-Schneider 1987; G.Gross 1988 ; M.Mathieu-Colas 1988 ; M.Silberztein 1989) 등 여러 분류작업에서 이용되었다.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표현의 상세한 어휘적 분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류의 수는 늘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실제적 규약들을 미리 채택하였다. 이제 예문을 바탕으로 이런 규약들의 통사적 근거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i) 먼저, 우리는 명사전치 형용사를 명사의 한정사에 포함시켰다. 다시 말해서,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음 두 문장은 동일한 유형으로 분석된다.

Luc n'a pas dit son dernier mot

Luc passe la main

$N_0 V ((\text{Dét}) (N))_1$       이때 Dét =: son dernier + la

그러므로 단일명사와 전치 형용사를 동반한 명사는 동일 부류 안에 놓인다. 이런 선택을 취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관찰에서 기인한다.

- 상이한 형태의 전치 형용사의 수는 많지 않다.
- 이런 형용사는 빈번히 사용되며, 그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속하는 문장에 관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ii) 아래 문장의 보어 명사구는 여러 가지 분석의 충위를 제시한다.

(6) <Luc connaît> le fin mot de l'histoire

<Luc a tué> la poule aux oeufs d'or

<Luc rattrape> le temps perdu

분류작업을 행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매우 자유롭게 이러한 충위들

중 하나 혹은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택해보자.

N de N     =: (le fin mot)<sub>N</sub> de (l'histoire)<sub>N</sub>  
 N Prép N   =: (la poule)<sub>N</sub> à (les oeufs d'or)<sub>N</sub>  
 N Modif    =: (le temps perdu)<sub>N</sub>

이러한 선택은 아래와 같은 명백한 결과를 지닌다.

- 위 (i)에서 정의된, 전치형용사 fin을 한정사에 포함시킨다는 규약은 mot를 올바르게, 즉 명사구의 머리어로 분석하게 한다.
- 명사구 les oeufs d'or는 단일구<sup>2)</sup>로 분석되며, 이는 복합명사 temps perdu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다음의 문장에 나타나는 temps처럼 단일어로 간주된다.

<Luc perd> son temps

드물게 나타나는 복합형태에 대해서는 특별한 부류를 설정하지 않았다. 분석의 층위 중 어떤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그들을 보다 단순한 형태들과 함께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런 방법은 분석되지 않은 부분을 남기기도 하나, 소수의 항목을 지닌 부류의 수를 줄이고 그 결과 분류작업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 2.3. 부류의 정의 원칙

일반적으로 우리는 문장,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는

---

2) 마찬가지로 la poule aux oeufs d'or 또한 다음 구조 중 하나로 분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N de N =: (la poule aux oeufs)<sub>N</sub> de (or)<sub>N</sub> + ((la poule)<sub>N</sub> à ((les oeufs)<sub>N</sub> de (or)<sub>N</sub>)<sub>N</sub>)<sub>N</sub>

형태들을 표상하고 분류한다.

$$N_0 V W =: N_0 V (\text{Prép } N_i)^k$$

따라서 전치사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는 명사구를 잘 한정짓는 일이 중요하다. 더우기 부류의 구성은, 다음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충 가능한 상이한 성격의 원칙들을 따른다(M.Gross 1976: J.-P.Boons, A.Guillet, C.Leclère 1976의 머리말 참조).

- 한편으로, 분류작업은 이론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앞에서 우리는 분류작업을 정의하는 통사적 절차를 설명한 바 있다.
- 다른 한편으로는, 각 부류의 항목 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로 인해 때로는 분류작업의 논리에 따라 구분된 소그룹들의 재배열 (regroupement)이 실행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복합형 보어를 취하는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1) Luc a pris ((ses cliques)<sub>N</sub> et (ses claques)<sub>N</sub>)<sub>1</sub>

위 문장의 구조를 표상하면  $N_0 V C_1$ 이 되며, 이는 Luc a passé la main 이라는 문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일보어를 취하는 구조이다.  $C_1$  부류는 단 하나의 명사만을 지니는 이런 단순형을 위해 정의된 것이다.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복합구성의 직접목적보어를 취하는 문장의 수가 얼마 안된다고 가정하면, (1)과 같은 몇몇 형태에 대해 하나의 부류를 정한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이 형태의 표상과 유사한 해결책을 채택할 수 있다.

- 이들을  $C_1$  부류로 분류하는 방법 : 이는 결국 그 첫번째 명사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두번째 명사는 수식어로 취급하여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숙어화된 두 보어를 취하는 구조와 함

계 C1P2 부류로 분류하는 방법.

$N_0 V C_1 \text{ Prép } C_2 =:$

Luc a mis (la main)<sub>1</sub> à (la pâte)<sub>2</sub>

Luc a pris (ses cliques)<sub>1</sub> et (ses claques)<sub>2</sub>

이러한 해결책은 결과적으로 문장(1)에 이 문장이 지니지 않은 속성, 즉 예를 들어 두 보어 사이의 부사 삽입 가능성 등을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는 이 해결책을 채택하였다.

그 이유는 접속사와 전치사간에는 구별이 용이하며, 그 결과 이런 표지가 부사의 삽입과 같은 속성의 통제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해결책이 예문(6)에서와 같이 명사보어를 포함한 단일보어에 대해서도 채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명사보어의 전치사와 제 2보어의 전치사가 즉각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prendre la poudre d'escampette라는 예는 아래 <그림 2>에서와 같이 표상될 것이다.

각 구조 혹은 구조의 집합은 하나의 부류를 정의하며, 그 요소들은 자유문의 경우에 이용된 것과 동일한 유형의 통사 도표의 형태로, 다시 말해서 어휘문법의 형태로 표상된다(M. Gross 1968, 1975 참조). 표 C1P2를 정의하는 구조  $N_0 V C_1 \text{ Prép } C_2$ 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구조는 다음 <그림 2>와 같은 형태를 보인다.

V	Dét	C <sub>1</sub>	Prép	Dét	C <sub>2</sub>
mettre	la	main	à	la	pâte
prendre	le	taureau	par	les	cornes
prendre	le	train	en	-	marche
prendre	la	poudre	d'	-	escampette
prendre	ses	cliques	et	ses	claques
tuer	-	père	et	-	mère



앞에서 지적한 바 대로 복합형 단일보어를 취하는 구조들을 위와 같이 표상하였다. 이 중 하나는 명사보어를 지닌 경우이고, 나머지 들은 등위접속된 두 부분을 지닌 것이다. 이런 형태들은 이중의 속어보어를 취하는 구조들과 함께 수록되었다.

<그림 2>

표상방법은 단순하다. 각 영역은 잘 한정된 문법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 단일어를 포함한다. 사실 도표의 열(colonnes)은 단어를 구분짓는 공간에 해당한다. 지면 배치상의 이유로, 다음에 설명된 바와 같이 몇몇 형태의 규격화 작업(normalisation)이 요구된다.

- 전치사와 관사의 축약형은 재구성된다( aux = à les, du = de le 등으로).
- 몇몇 단어는 "-"의 기호로 실현된 제로형을 취한 것으로 표상된다(예를 들면, <그림 2>에서 marche, père, mère 등의 한정사가 여기에 속한다).

이와 같은 표상방법은 도표에 실릴 정보의 특수성을 줄일 경우 일반화될 수 있다. 도표의 Prép로 표시된 영역이 등위접속사의 도입에 의해 모호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속어화된 요소의 품사를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수많은 속어표현의 어휘적 의미내용이 이를 구성하는 단일어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적 속성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다음에 그 예가 있다.

- une deux chevaux, un trois pièces 등에서 그 구성요소의 성·수는 복합형의 성·수와 무관하다.
- le qu'en dira-t-on, un en avant 등에서 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복합형이 이루는 명사구라는 범주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아래 <그림 3>에서와 같은 표상이면 충분하다.

V	Dét	X	Y	Z	W
passer	la	main	-	-	-
rattraper	le	temps	-	-	perdu
découvrir	le	pot	à	les	roses
prendre	la	poudre	d'	-	escampette
ne valoir pas	la	corde	pour	le	pendre
laisser	-	pisser	-	le	mérinos
mettre	la	main	à	la	pâte
prendre	le	taureau	par	les	cornes
prendre	le	train	en	-	marche
prendre	ses	cliques	et	ses	clagues
tuer	-	père	et	-	mère

〈그림 3〉

〈그림 3〉의 도표는 다음에 설명된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들을 하나의 부류 안에 함께 수록함으로써 상당한 일반성을 나타내 보인다.

- 우리는  $N_0 V C_1$  유형에 속하는 문장 *passer la main*을 이중의 속어보어를 취하고 그 중 하나는 비어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실제로 위 도표의 마지막 세 영역은 "-"의 표지를 지니며, 이는 생략(omission)에 해당될 수 없다.

-  $N_0 V C_1$  유형에 속하는 문장 *rattraper le temps perdu*에서도 마찬가지로 제 1보어를 수식하는 부가사(épithète)를 속어화된 제 2보어로 표상하였다. 등위접속된 보어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러한 표상은 구조에 관한 정보에 의해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X로 표시된 영역은 〈그림 2〉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명사뿐만 아니라, (*pisser* 등과 같은)동사도 포함한다.

- Y로 표시된 영역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전치사와 등위접속사를 포함하며, 역할이 없는 "-"의 기호도 포함한다.

- Z로 표시된 영역은 한정사뿐만 아니라, (*le*와 같은) 동사전치 대

명사(pronom pré-verbal)와 역할이 없는 “-” 기호도 내포한다.

- W로 표시된 영역은 명사, 동사, 형용사, “-” 기호 등을 포함한다.

이런 형태의 도표는 그 구조에 관계없이 모든 속어문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돈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속어구문의 특수성을 한정짓는 일이므로, 이런 점은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도표가 지니는 중요한 이점은 그것이 한 속어문을 구성하는 단어들 중 어떤 것이든 하나로부터 그 속어문 전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우리는 Dét, Y, Z로 표시된 영역이 문법적 단어만을 포함하는 반면에 V, X, W에 의해 표시된 영역은 실사(mots pleins)만을 포함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표상은 단순히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상이 사전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전학의 한 문제점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 문제점이란 곧 여러 개의 실사로 형성된, 달리 말해서 주요 4품사에 속하는 여러 개의 단어들로 형성된 표현에 있어서의 표제어 선택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주동사로 부터 표현으로 들어가 기”와 같은 단순한 하나의 규약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복합형의 어휘목록(lexique)에 있어서 단일어간의 빈도의 상이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prendre와 같은 몇몇 동사는 수많은 표현들에 개입되므로 prendre를 지닌 어떤 특별한 표현을 사전의 해당 항목 안에서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더우기 적어도 둘 이상의 요소가 결합된 형태에 대해 편리한 사전적 순서를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 3. 부류의 통사적 속성

앞서 우리는 전체 문장들을 부류로 구분짓는데 이용되는 여러 통사적 속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러나 부류로의 구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체계적인 통사적 기술, 즉 불어의 문법(grammar)과 어휘부(lexique)의 구성이 우리의 목표로 남는다. 그러므로 통사적 기술이 각 부류 안에서 상세하게 계속되어야 한다. 그 방법은 자유문의 경우에 사용된 방법과 동일하다. 즉 도표에는 일반적으로 부류를 정의하

는데 사용되는 처음의 기본구조의 변형인 통사구조들을 표상하는 열 (colonnes)이 도입된다. 우리는 기본문장이 열에 제시된 구조와 관계를 맺는지의 여부에 따라 기본문장을 + 혹은 -로 표시한다.

열에 부류의 정의에 이용된, 기준이 되는 기본구조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림 3>의 도표를 다시 보자. 우리는 여기에,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표상된 보어의 수를 명시하는 구조를 도입할 수 있다.

V	Dét	X	Y	Z	W	C <sub>1</sub>	C <sub>1</sub> C <sub>2</sub>
passer	la	main	-	-	-	+	-
rattraper	le	temps	-	-	perdu	+	-
découvrir	le	pot	à	les	roses	+	-
prendre	la	poudre	d'	-	escampette	+	-
ne valoir pas	la	corde	pour	le	pendre	-	+
laisser	-	pisser	-	le	mérinos	-	-
mettre	la	main	à	la	pâte	-	+
prendre	le	taureau	par	les	cornes	-	+
prendre	le	train	en	-	marche	-	+
embuer	les	yeux de N	de	-	larmes	-	-
prendre	ses	cliques	et	ses	clagues	+	-
tuer	-	père	et	-	mère	+	-

<그림 4>

C<sub>1</sub>으로 표시된 첫번째 열은 단일보어를 취하는 구조인 N<sub>0</sub> V C<sub>1</sub>에 해당 며, C<sub>1</sub>C<sub>2</sub>로 표시된 두번째 열은 이중의 보어를 지니는 문장, 즉 N<sub>0</sub> V C<sub>1</sub> Prép C<sub>2</sub>에 해당한다. "+"와 "-"의 기호는 이 두 유형을 구별짓는다.

다른 속성들이 도표에 도입될 수 있는데, 한 예로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은, 속어 위치와 자유결합 위치의 분포적 속성을 들 수 있다.

$$N_i =: C \text{ de } N_{hum}, N_i =: C \text{ de } N\text{-hum},$$

$N_i =: N_{hum}$ ,  $N_i =: N_{-hum}$ ,  $N_i =: N_{nr}$ , 등

또 일상적인 변형적 속성들도 도입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른 데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속어문을 기술하는 데 이용될 기본적인 이론적 수단에 대해 설명하였다. 명심해야 할 것은 속어문이라는 개념이 미리 주어진 기본 전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관용적 표현의 예들은 즉각적으로 인식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경우에 조차도 표상된 각 문장의 속어적 특징을 의미·통사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동사와 명사간의 속어적 결합과 기능동사(verbe support) 또는 작용동사(verbe opérateur) 구문간의 구별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L. Danlos 1988, M. Gross 1988a).

#### 4. 분류

이리하여 우리는 엄격히 의미·통사적인, 따라서 조작적인 근거하에 문장표현의 부류를 구성 가능하게 하는 광범위한 성격의 여러 기준들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 가능한 기준 범위의 양극단 중 하나는 (예를 들어 <그림 2>와 같은) 단일 도표의 작성, 즉 표현을 단순히 표기형태상의 단어들로 분해하는 작업에 대응된다. 다른 극단은 품사에 의해 정의된 바 그대로의 구성성분 각각의 통사유형에 따른 분류작업에 연관된다.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일단 구조에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자주 나타나지 않는 문법적 상이성은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배열 방식에 의해 구조적 다양성을 제한한 중간적인 해결책을 선택하였다.

우리의 분류작업은 기본문장이 취하는 속어보어의 수와 형태를 근거로 이루어짐을 상기하자. 이처럼 속어문의 분류작업은 자연스럽게 자유문의 분류작업을 보충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는 속어화된 부분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 있어서만 자유문의 분류작업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자유문의 경우에  $N_i$ 으로 표기하였던 것을 여기서는  $C_i$ 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립은 기본문을 그 내용

물(contenu)에 따라  $N_i$ 과  $C_i$ 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N_0 V C_1$  형태의 자유결합 구조에 대해 선형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유형의 속어문 구조가 대립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적어도 하나의 부류를 설정 가능하게 한다.

$N_0 V C_1$

$C_0 V N_1$

$C_0 V C_1$

실제로 우리는 위 구조를 취하는 문장들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Luc a cassé sa pipe( $C_1$ )

La grâce a touché Luc( $C_0$ )

Le sort en a décidé ainsi( $C_0$ )

이 경우에는, 각 유형별 항목수의 차이가 너무 커서 기본문장의 구조를 부류 정의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현실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  $C_1$  유형에 속하는 요소가 단연 가장 많으므로, 우리는 이를  $C_1$ 이 취하는 한정사의 성격에 따라 아래의 네 부류로 하위구분하였다.

$C_1D$  부류에 속하는 항목들은 정관사를 취한다.

$C_1I$  부류에 속하는 항목들은 부정관사를 취한다.

$C_1G$  부류에 속하는 항목들은 일반적으로 주어와 공지칭관계를 형성하는 소유형용사( $Poss^0$ )를 한정사로 갖는다.

$C_1RD$  부류에 속하는 항목들은 잔여한정사 (*déterminant résiduel*)를 취한다.

$C_1PN$  유형 또한 그 수가 많으므로 동일한 방식의 하위구분이 행해졌다.

-  $C_0$  유형의 문장은 다수이므로, 보어의 수와 형태에 따라 이를 다

음과 같이 분류한다.

C01 부류의 항목들은 숙어화된 직접목적보어를 지닌다.

C0P1 부류의 항목들은 숙어화된 간접목적보어를 지닌다.

C0PN 부류의 항목들은 자유결합형의 전치사보어를 지닌다.

마찬가지로, 숙어화된 주어를 지니는 문장들의 총체<sup>3)</sup>는 아래 (iii)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하위구분된다.

이와는 반대로, 주어진 한 숙어문 구조에 대응되는 항목의 수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부류를 구성하기가 곤란한 상황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 우리는 일반 원칙을 완화한 표상방법을 채택하였다. 그 예를 보자.

(i) 자유문의 경우 두 개의 전치사보어를 취하는 형태는 그 수가 많지 않는데(그 한 예로  $N_0$  parler à  $N_1$  de  $N_2$  유형을 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M.Gross 1975를 참조할 것), 이런 현상은 숙어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더우기 이 경우에는 다음에 제시된 바와 같은 두 유형이 존재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두 부류를 한정지을 것이다.

$N_0$  V Prép  $N_1$  Prép  $C_2$ (CPNPC)

$N_0$  V Prép  $C_1$  Prép  $C_2$ (CPCPC)

게다가, 각 유형의 하나의 보어에 대해 두 형태를 구별할 경우에는 다음의 유형을 포함한 세 부류가 될 수도 있다.

$N_0$  V Prép  $C_1$  Prép  $N_2$ (CPCPN)

그러나 각 유형에서 하나씩의 보어를 취하는 구조에서는 두 보어의 순서를 바꾸는 환치조작([longueur p.])이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하

3) 그러나 être 동사를 취하는 문장들과 Il y avoir 형태의 문장들은 따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며, 그럴 경우 두 구조는 서로 구별되지 않게 된다. 여하튼 각 부류는 몇 십개 정도에 불과한 너무 적은 수의 항목만을 포함하게 되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표상방법을 택하여 이들을 한데 묶기로 했다.

- 관례상, 속어보어를 제 1보어로 삼고 C1으로 표시한다.
- 제 2보어는 자유결합형일 수도 있고 속어형일 수도 있으며, N<sub>2</sub> 또는 C<sub>2</sub>로 표시한다.

따라서 제 2보어는 이중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속어보어의 세 구성성분인 Prép, Dét, C가 표상되는 알파벳 방식의 영역과 다른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N<sub>i</sub>:=Nhum, N<sub>i</sub>:=N-hum, N<sub>i</sub>:=Qu P, N<sub>i</sub>:=de V-inf W 등과 같은), 자유결합형 보어를 기술하는 속성들이 표시되는 열("+와 "-"기호의 영역)로 이루어진다. <그림 5>에서는 이러한 표상의 한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해당 부류는 CPP로 명명된 것이다.



V	Prép	Dét	C <sub>1</sub>	Prép	Dét	C <sub>2</sub> , N <sub>2</sub>	Nhum	N-hum	Ppv
aller	de	-	mal	en	-	pis	-	-	-
répondre	de	le	tac	à	le	tac	-	-	-
se battre	en	-	duel	avec	-	-	+	-	-
revenir	en	-	mémoire	à	-	-	+	-	+

제 2보어가 자유결합형인지 속어형인지에 관계없이, Prép로 표시된 동일한 부분이 이용되었다. Dét과 Prép으로 표시된 구성성분에 관한 정보는 열(colonnes)에서 제시된 정보를 보충한다. 이때 비관여적인 정보는 "-"으로, 다시 말해서 용인불가능성(inacceptabilité)을 표시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표시된다.

#### <그림 5>

<그림 5>에 제시된 예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 de mal en pis는 aller의 두 보어로 분석되었으나, 동일한 형태의 자유문인 passer du Pérou au Brésil에서는 복합구성의 단일보어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J. -P. Boons, A. Guiller, C. Leclère 1976).

- du tac au tac의 연쇄체는 분석이 불가능하다. 즉 이를 두 보어로 분해하기 보다는 단일보어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줄 논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CPP 부류로 분류한 결정은 자의적인 것이다.

- se battre en duel avec quelqu'un의 두 보어가 표상된 순서는 자연스럽다. 반면에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가 그렇게 명확하지 못하다.

L'incident revient à Luc en mémoire

L'incident revient en mémoire à Luc

아마도 <그림 5>의 도표에서 제시된 순서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런지도 모른다. 위 예의 경우에는 경미한, 이런 뒤바뀐 자연스

러운 순서를 지적해 줄  $\text{Prép}(C_2 + N_2) \text{Prép} C_1$ 의 열에 의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세 개의 보어를 취하는 자유문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속어문의 경우에도 그 수는 많지 않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되는 여러유형들로 재구분된다.

$$N_0 V (N_1 + C_1) \text{Prép}(N_2 + C_2) \text{Prép}(N_3 + C_3)$$

그러므로 몇몇 구조의 부류는 항목수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CPP 부류에서와 동일한 해결책을 택할 것이다. 즉 7개의 부류를 재배열한 부류, 즉 CPPN은 혼합표상 방식(représentation mixte)을 취하는 두 보어를 내포하며, 그 중 하나는  $C_1/N_1$ 으로 표시되는 직접목적보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결국 CPPN의 도표는 그 첫 위치에 직접목적보어의 영역을 첨가했다는 점에 있어서만 CPP의 도표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두 전치사보어에 관계된 문제들이나 그에 대한 해결책은 두 도표에 있어서 동일하다.

(iii)  $C_0 V W$ 로 표시되는, 속어화된 주어를 지니는 형태들은 약 2500개 정도로 비교적 그 수가 많음을 지적했는데, 그와 함께 이때의  $W$ 는 가능한 모든 변이형을 표현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9개 정도의 형태들을 관찰할 수 있다.

$$C_0 V \text{Prép}(E + N_1 + C_1) \text{Prép}(E + N_2 + C_2)^{4)}$$

따라서 이를 구분짓지 않을 경우  $C_0$ 의 도표는 여러 개의 혼합표상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위 9개의 유형에 따라 형태를 구분하면 각 부류는 수적 불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이들을 다음과 같은 4개의 부류로 구분하였다.

- $C_0Q$  :  $W$  내에서의 위치에 관계없이, 자유결합형의 보족절을 취하는 모든 유형이 여기에 속한다.

---

4) 위 공식에서  $\text{Prép}$ 는 제로형일 수도 있다.

- C01 : 속어화된 직접목적보어를 취하는 형태들을 포함한다.
- COP1: 속어화된 간접목적보어를 취하는 형태들을 포함한다.
- COPN: 자유결합형의 간접목적보어를 취하는 형태들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분류가 덜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한 예로 C01 부류는 Il vente와 같은, 목적보어를 취하지 않는 문장을 포함하기도 한다.

### 주의

1) (i)-(iii)을 통해 논의된 부류들은 (Qu P 또는 (de) V-inf W와 같은) 문장 형식의 보어를 허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하위구분되었으며, 그 결과 COQ와 CPPQ의 부류로 나뉜다. 따라서 CPQ 부류는 CPP와 유사한 하위부류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는 보어의 두 유형, 즉 자유결합형인  $N_i$ 과 속어형인  $C_i$ 을 대립시켰다. 속어보어의 기술은, 예를 들어 다음 예문에서와 같이, 그 속어보어가 속어화된 부분과 자유결합형의 부분을 동시에 지닐 경우 명확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Ce mensonge a ouvert les yeux de Luc

위 예문에서 주어의 분포는 자유로운(Nnr) 반면, 직접목적보어의 머리어(yeux)는 동사에 대해 응결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목적보어(yeux)가 취하는 명사보어는 자유로운 분포(Nhum=:Luc)를 보인다. 따라서 위 문장의 통사구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N_0 \text{ V (C de } N)_1 \text{ } =: \text{ (Ce mensonge)}_0 \text{ a ouvert (les yeux de } \\ \text{Luc)}_1$$

위와 같은 표시법은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통사적 위치에서 일반화될 수 있을 것이다.

(La moutarde)<sub>0</sub> monte à (le nez de Luc)<sub>1</sub>  
 (Le sourire de Luc)<sub>0</sub> est amer

이 표시법은 N<sub>0</sub> V C<sub>1</sub> 형태의 구조들을 분류하는 데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C de N)<sub>1</sub> 형태의 보어는 속어보어로 다루어지며, 이들이 내포하는 Prép Dét N으로 표시된 부분은 알파벳 방식의 영역에서 명시된다. de N 형태의 보어에 관한 기술은 (Nhum, N-hum, Ppv 등으로 표시되는) 열에서 행해지며, 그 결과 이 열들은 혼합표상 방식에 의한 열들과 서로 구별된다.

## 5. 결론

비록 동사<sup>5)</sup>의 어휘부, 따라서 결국 보어 구조의 총체는 처음의 분류작업과 비교하여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어의 내적 구조의 기술에 있어서는 문제가 다르다. 처음에 우리는 G.Gross 1988에서 작성된, 그리고 이 글 2장에서 기술된 바 있는, 복합명사의 분류를 이용하려 했다. 그럴 경우 perdre la boussole에서의 la boussole와 같은 단일형 C<sub>i</sub>과 prendre la poudre d'escampette에서의 la poudre d'escampette와 같은 복합형 C<sub>i</sub>을 구별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분류기준에 의해 행해진 시도로는 부류들을 유효한 수효의 항목을 지닌 하위부류들로 나눌 수 없었다. 반면에 한정사의 성격에 대한 고려는 다음의 두 문제에 있어 매우 적합했다.

- 그 하나는 실제적인 측면으로, 너무 많은 수의 항목들로 구성된 부류를 수적으로 균형잡힌 항목의 부류들로 하위구분하는 문제이다.

5) 그러므로 단일동사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연속되는 두 공백 사이에 놓인 일련의 문자들"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단일어의 형식적 정의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Ppv, Nég, bien 등과 같은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는 특수한 기계 장치가 개발될 때, 이 두 개념은 함께 쓰일 수 있게 될 것이다(D.Perrin 1989, M.Silberztein 1989).

- 다른 하나는 이론적인 측면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늘 표현의 응결성(fixité)의 “정도(degré)”를 결정짓는 복합성의 특징에 대한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그런데 한정사의 성격은 숙어화된 명사와 그 동사<sup>6)</sup>의 결합체 사이의 수식어(modifieur) 삽입 가능성을 예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이용했던 하위분류화는 극히 자연스러운 듯하다. 더우기 이러한 하위분류화가 이미 많이 잘 알려진 한 현상, 즉 몇몇 전치사의 존재는 한정사를 제약한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명백히 한다. 예를 들어, 직접목적보어의 위치에서는 예외적이며, 주어의 위치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제로형” 한정사는 전치사를 동반하는 위치, 즉 Prép Ci에서는 자연스럽게 하위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런 속성을 한편으로는 3장에서 기술된 바와 같은 방식으로 C1과 C1PN 부류를 세분하는 데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CP1과 C1P2 부류를 구분짓는 데에 이용하였다.

---

6) 특히, 이러한 구별은 숙어표현의 기계분석(analyse automatique)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이다(E.Laporte 1988).

## 부 록

부록 1 : 본 도표는 직접목적의 보어절을 취하는 속어문,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지닌 문장들에 해당되는 표 C6의 일부를 옮긴 것이다.

No V (Qu P)<sub>1</sub> Prép C<sub>2</sub>

열(colonnes)에서 제시된 속성들은 M.Gross 1975에서 기술된, 보어절을 취하는 문장들의 목록인 표 6에서의 속성들과 동일하다.

부록 2 : 본 도표는 복합명사(noms composés) 분류의 현 단계를 보여준다(G.Gross 1988).

부록 3 : 본 도표는 복합부사(adverbes composés) 분류의 현 단계를 보여준다(M.Gross 1990).

부록 4 : 본 도표는 1990년 초반기의 복합동사(verbe composés) 혹은 속어문의 분류 상황을 보여준다. 그 후로 C1, C1PN, C0 부류가 앞서 우리가 기술한 바 대로 하위분류되었다. 1991년 5월 현재, 분류된 속어문의 수는 약 삼만 개 정도로 증가되었다.

복합형용사(adjectifs composés)의 분류 원칙은 다른 데서 이미 제시한 바 있음을 다시 밝힌다(M.Gross 1988b).



## 부 록 2

NA	N Adj	cordon bleu	48000
NDN	N de N	pomme de pin	28000
NAN	N à N	ver à soie	2500
AN	Adj N	fin gourmet	1500
PN	Prép N	à-côté	500
VN	V N	lave-glace	1000
NN	N N	télé-couleur	2300
NAV	N à V	bon à tirer	200
etc.			



## 부 록 3

Tables (Codes)	Structures	Exemples	Tailles
PADV	Adv	soudain	520
PC	Prép C	en bref	590
PDETC	Prép Dét C	contre toute attente	750
PAC	Prép Adj C	de sa belle mort	670
PCA	Prép C Adj	à gorge déployé	710
PCDC	Prép C de C	en désespoir de cause	620
PCPC	Prép C Prep C	des pieds à la tête	240
PCONJ	Prép C Conj C	en tout et pour tout	290
PCDN	Prép C de N	au moyen de N	450
PCPN	Prép C prép N	par rapport à N	140
PV	Prép V W	à dire vrai	240
PF	P(phrase figée)	Dieu seul le sait	360
PECO	(Adj) comme C	comme ses pieds	300
PVCO	(V) comme C	comme en cheveu sur la soupe	330
PPCO	(V) comme Prép C	comme dans du beurre	40
PJC	Conj C	et tout le tremblement	150
TOTAL			6400

## 부록 4

Tables (Codes)	Structures	Exemples	Tailles
C1	$N_0 V C_1$	Il a loupé le coche	4450
CAN	$N_0 V (C \text{ à } = \text{ de } N)_1$	Cela a délié la langue de Max(lui)	810
CDN	$N_0 V (C \text{ de } N)_1$	Il bat le rappel de ses amis	610
CP1	$N_0 V \text{ Prép } C_1$	Il charrie dans les bégonias	1850
CPN	$N_0 V \text{ Prép } (C \text{ de } N)_1$	Il abonde dans le sens de Max	320
CIPN	$N_0 V C_1 \text{ Prép } N_2$	Il a déchargé sa bile sur Max	2010
CNP2	$N_0 V N_1 \text{ Prép } C_2$	Ils ont passé Max par les armes	1610
CIP2	$N_0 V C_1 \text{ Prép } C_2$	Il met de l'eau dans son vin	1040
CPP	$N_0 V \text{ Prép } C_1 \text{ Prép } C_2$	Il tape du poing sur la table	210
CPPN	$N_0 V C_1 \text{ Prép } C_2$ $\text{Prép } C_3$	Il se met le doigt dans l'oeil jusqu'au coude	370
C5	$\text{Que } P V \text{ Prép } C_1$	Que Max reste milite en sa faveur	170
C6	$N_0 V \text{ Qu } P \text{ Prép } C_2$	Il a pris du bon côté que Max reste	300
C7	$N_0 V C_1 \text{ à ce Qu } P$	Il a dit non à ce que Max reste	140
C8	$N_0 V C_1 \text{ de ce Qu } P$	Il se mord les doigts de ce qu'il est resté	290
CPQ	$N_0 V C_1 \text{ Prép ce Qu } P$	Il partira à temps pour voir Luc	330
CPPQ	$N_0 V C_1 \text{ Prép } C_2$ $\text{Prép ce Qu } P$	Il rend grâce au ciel du ce qu'il a réussi	210
CADV	$N_0 V \text{ Adv}$	Cela ne pisse pas loin	350
CV	$N_0 V (\text{Prép}) V W$	Il est parti sans laisser d'adresse	450
CO	$C_0 V W$	La moutarde monte au nez de Max	1320
COQ	$C_0 V \text{ Prép } N \text{ Qu } P$	Peu lui importe s'il part	300
COE	$(V + X) W$	Minute papillon !	1100
A1	$N_0 \text{ avoir } C_1$	Il a eu le mot de la fin	280
AIPN	$N_0 \text{ avoir } C_1 \text{ Prép } N_2$	Il a barre sur Max	110
ANP2	$N_0 \text{ avoir } N_1 \text{ Prép } C_2$	Il a Max en horreur	90
A12	$N_0 \text{ avoir } C_1 \text{ Adj}_2$	Il a la vue basse	110
AIP2	$N_0 \text{ avoir } C_1 \text{ Prép } C_2$	Il a mal aux cheveux	340
E01	$C_0 \text{ de } N \text{ être Adj}$	La barbe de Max est fleurie	830
E0P1	$C_0 \text{ être Prép } C_1$	Le temps est à la pluie	340
		TOTAL	20340

## 참고 문헌

- Boons, Jean-Paul : Alain, Guillet : Christian, Leclère 1976. *La structure des phrases simples en français.1 Constructions intransitives*, Genève : Droz, 377 p.
- Courtois, Blandine 1989-90. *Dictionnaire électronique du LADL pour les mots simples du français. DELAS V06/2*, Rapport technique du LADL N° 20, Université Paris 7: LADL, 458 p.
- Courtois, Blandine 1990. Un système de dictionnaires électroniques pour les mots simples du français, *Langue française* N° 87, Paris : Larousse.
- Courtois, Blandine et Silberztein, Max éd.s. 1990. Dictionnaires électroniques du français, *Langue française* N° 87, Paris : Larousse.
- Danlos, Laurence 1988. Les expressions figées, *Langages*, N° 90, Paris: Larousse.
- Giry-Schneider, Jacqueline 1978. *Les nominalisations en français. L'opérateur FAIRE dans le lexique*, Genève : Droz, 353 p., tables : 61 p.
- Giry-Schneider, Jacqueline 1987. *Etude de prédicats nominaux en français. Les constructions faire N*, Genève: Droz, 399 p.
- Gross, Gaston 1988. Degré de figement des noms composés, *Langages* N° 90, Paris : Larousse, pp.57-72.
- Gross, Maurice 1990. *Grammaire transformationnelle du français. 3-Syntaxe de l'adverbe*, Paris : Cantilène 189 p.
- Gross, Maurice 1975. *Méthodes en syntaxe*, Paris :Hermann, 412 p.
- Gross, Maurice 1982. Une classification des phrases figées du français, *Revue québécoise de linguistique*, Vol. 11, N° 2, Montréal : Presses de l'Université du Québec à Montréal, pp.151-185.
- Gross, Maurice 1988. Les limites de la phrase figée, *Langages*, N° 90, Paris : Larousse, 7-22.
- Gross, Maurice 1990. *Grammaire transformationnelle du français. 3-Syntaxe de l'adverbe*, Paris : ASSTRIL, 670 p.
- Guillet, Alain : Christian Leclère 1991. *La structure des phrases simples en français. Verbes à complément direct*

- et complément locatif, Genève : Droz.
- Harris, Zellig S. 1952. *Discourse Analysis*, *Language* 28, Baltimore : The Waverly Press, pp.1-30.
- Harris, Zellig 1964. *Elementary Transformations*, Philadelphie : University of Pennsylvania, TDAP N° 54, réimprimé in *Papers in Structural and Transformational Linguistics*, 1970, Reidel : Dordrecht.
- Harris, Zellig 1968. *Mathematical Structures of Language*, New York : Wiley, 230 p. ; traduction française par C. Fuchs, 1971 : *Structures mathématiques du langage*, Paris : Dunod, 248 p.
- Laporte, Eric 1988. La reconnaissance des expressions figées lors de l'analyse automatique, *Langages* N° 90, Paris : Larousse, pp.117-126.
- Leclère, Christian 1990. Organisation du lexique-grammaire des verbes français, *Langue française* N° 87, Paris : Larousse.
- Machonis, A. Peter 1988. Support Verbs : An Analysis of *be Prep X* idioms, *The SECOL Review*, 12. 2, pp. 95-125.
- Mathieu-Colas, Michel 1988. Variations graphiques des noms composés dans le *Petit Larousse*, et le *Petit Robert*, *Lingvisticae Investigationes*, Vol. 1, N° 2, Amsterdam-Philadelphie : J. Benjamin Pub. Co., pp.235-281.
- Perrin, Dominique 1989. Automates et algorithmes sur les mots, *Annales des Télécommunications*, Tome 44, N° 1-2, pp.20-33.
- Silberztein, Max 1989. *Dictionnaires électroniques et analyse lexicale automatique*, thèse de doctorat, Université Paris 7, Paris : LADL.

<한선혜 역>